

사회 >> 3면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기획 >> 6면

슬기로운 대학생활, 알찬 새내기를 위한 서경대 길라잡이

현장르포 >> 7면

팝업 스토어 방문기

제567호

2023년 3월 10일(금)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2023 신입생 문화제, 성황리에 막 내려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약 이틀간 진행된 '2023학년도 서경대학교 신입생 문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학교 '위로'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634명의 신입생 중 약 1,370명이 참가했다. 이번 문화제는 서경대학교 수인관에서 약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대규모 행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신입생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가 아닌 '노 마스크'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 첫째 날에는 총장님의 인사, 장학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위로' 총학생회의 OT가 진행됐다. 이곳에선 중앙운영위원회

소개, 교내 주요시설 안내, 학생회비 납부 안내 등 신입생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어쿠스틱 밴드, 가수 10CM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그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곡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힘찬 목소리로 신입생 학우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신입생 학우들은 이에 화답하듯 뜨거운 함성과 큰 박수를 보냈다.

10CM의 공연이 끝난 뒤엔 학과별 수강 신청 및 OT가 진행됐다. 학과별 학생회 임원들은 신입생 학우들의 수강 신청을 도와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인문사회과 학대 단대마당이 시작됐다. 단과대별 학생회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학생회비 납부 안내, 수습 부원 모집, 회장단 공약 안내, 과방 소개 등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정보를 소개했다. 이후 학과별 레크



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 학우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둘째 날인 24일은 이공대학 단대마당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공대학 단대마당 또한 단과대별

학생회 임원 소개를 필두로 단대마당을 진행해 나갔다.

이공대학의 단대마당이 종료된 뒤엔 약 20분간의 ROTC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동아리 공연이 이어졌다.

댄스 및 합창 동아리 'SDR', 밴드 동아리 '워커스',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그라미', 뮤지컬 동아리 '우드람' 등 그들은 그간 열심히 연습했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에

신입생 학우들은 뜨거운 함성과 큰 박수로 화답했다. 신입생 학우들의 열기와 공연팀의 뜨거운 열정으로 수인관은 한층 더 후끈 달아올랐다.

둘째 날 행사 중간에는 총학생회의 이벤트 또한 진행됐다. 배달의 민족 쿠폰, 교내 카페 쿠폰 등 소소한 상품 증정을 통해 신입생 학우들의 흥미를 한층 더했다.

동아리 공연 및 총학생회 이벤트가 종료된 뒤엔 통합예술대학의 단대마당이 시작됐다.

통합예술대학 단대마당 또한 이공대학, 인문사회과대학 단대마당과 마찬가지로 단과대별 학생회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단대마당이 진행됐다. 통합예술대학의 단대마당에선 신입생 학우들의 끼와 재능을 표출하는 장기자랑 시간이 연이어 이어졌다. 신입생 학우들은 무대 위로 올라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더 글로리'의 명대사를 따라 하고, 랜

덤 플레이 댄스를 추며 자신들의 끼를 맘껏 표출했다. 신입생 학우들의 뜨거운 열기가 어느새 수인관을 가득 메운 모습이었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통합예술대학 단대마당을 마지막으로 이틀간 진행된 신입생 문화제가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선 수인관 곳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 및 신입생 학우들은 질서있고 안전한 공간에서 문화제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위로' 총학생회는 '신입생 문화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행사에 대한 피드백 수용 및 사후 처리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앞으로 개최될 다양한 행사에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변화하는 서경,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신설



최근 OTT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문화콘텐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현실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거라는 예측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기술 분야를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대학교는 대학이 가진 문화, 예술 분야의 장점을 살려 융합대학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를 신설했다.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는 예술과 기술에 대한 융합 커리큘럼을 기반

으로 산학 프로젝트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글로벌 산업 전문가로서의 융복합 창의적 실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김상훈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학과장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술 및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융합 분야, 뉴미디어아트,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창의적 능력을 기반으로 ICT와 문화기

술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는 이러한 시대에 맞게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Q.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주요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과는 예술과 기술에 대한 융합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산학 프로젝트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융복합 창의적 실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최신 교육 인프라를 통해 실감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로 영화, 공연예술 및 다양한 산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과 기술을 이해하는 Technical Director, 뉴미디어 분야와 최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Creative Director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Technical Director는 Contents SW 분야, Game & Interactive Content 분야, VFX & Animation 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Creative Director는 XR

Contents 기획 및 제작 분야, 실감형 공연/전시 문화기술 콘텐츠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Q.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입학하게 된, 입학하게 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콘텐츠가 이끌어갈 사회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첨단 융복합 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회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훌륭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예진 수습기자
 (keumij276@naver.com)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기분으로
 강의실로 향하는 학우

자세히 보는 이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 19 종식 다가오나



▲ 출처: 쿠팡뉴스

지난 1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어온 마스크 착용 의무에 변화가 생겼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우선으로 시작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 시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다.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점진적으로 감소되자 지난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버스, 요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화' 됐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3가지 조정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형은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획 발표 시점에 확진자 추세를 살펴보면, 환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수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 대를 지속하며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외의 상황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백신 접종 및 자연 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

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직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인터뷰]
- 김예원(가명/23세), 박민지(가명/23세)

Q.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김예원). 2년 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스크가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아요.
A(박민지). 의무는 아니지만 일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거예요. 힘들거나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있어서 좋아요.

Q.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김예원).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많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박민지). 대중교통에서는 비교적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니 마스크를 벗는 것에 찬성해요.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예진 기자
(keumij7276@naver.com)

폭등하는 난방비에.. '횡재세 부과하라'

2023년 겨울, 난방비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난방비가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됐다.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는 팬데믹과 지난해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가스 공사의 적자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 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횡재세' 부과 주장은 정치권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들은 올해 상반기 유가 폭등 등을 이유로 약 12조 영업이익을 낸 정유 4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그 재원을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난방비 대란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정유업체다. 우리나라 정유 4사 중 현대오일뱅크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제작년에 비해 작년 영업이익이 228% 증가한 덕분이다. 그 뒤로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역시 전년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유업체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며 횡재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고 자칫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을 줄이거나 설비가동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기름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설비투자가 축소되면 향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 인터뷰]
- 김수민(대학생/23세)

Q. 이번 난방비 대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미 예고된 대란이었습니 다. 이를 뒷받침하듯 글로벌 에너지난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덕분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에도 비교적 순조롭게 글로벌 에너지난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 글로벌 에너지난, 난방비 대란을 극복하여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경빈 기자
(rud55qls@naver.com)

‘비동의 간음죄’... 힘없는 피해자 구제해야 vs 억울한 무고자 생길 수 있어

지난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년 전 만에 입장을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비동의 간음죄가 발의된 배경을 알아보자. 현재 형법 297조에서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한다. 그러나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비동의 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3월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 66곳에 접수된 1030명의 강간 피해 사례 분석한 결과, 직접적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753명(71.4%)에 육박했다. [출처: 뉴시스]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종교 지도자와 신도간 관계처럼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데다 '업무상'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등장하고 있다. '동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8일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또한 문성호 국민권익위원장은 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나 피고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어 형소법상 큰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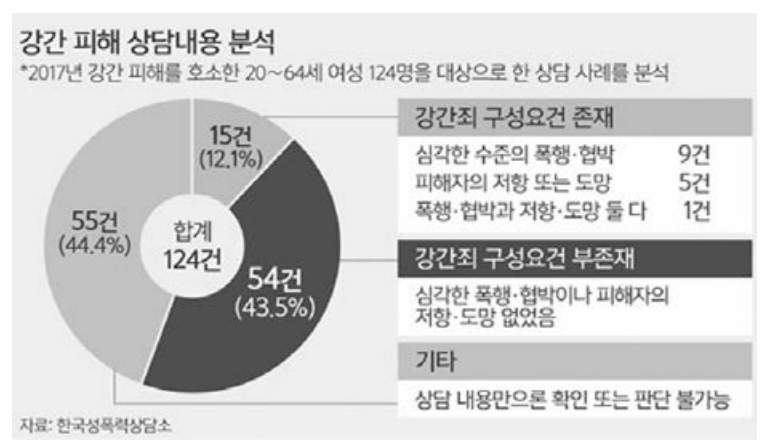
중 하나인 검사의 입증 책임이 흐려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덧붙여 해외에서는 입법적 공백 상태를 대비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 법규가 비교적 촘촘해 타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대중의 의견들을 알아보기 위해 24세의 각 남녀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 인터뷰]
- 김민수(가명/男), 박혜진(가명/女)

Q.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김민수). 현재 존재하는 성폭행 처벌법에는 아직 허점이 있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동의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박혜진).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김민수). 성폭행 처벌법을 교묘하게 빚겨가는 범죄가 조금이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A(박혜진). 앞에서 언급했듯,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김민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앞의 맥락과 같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A(박혜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의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선 조치를 취한 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농놀’ 슬램덩크 재유행, 세대 통합의 시작점과 파급력

1990년대 중고등학생의 청춘을 책임졌던 일본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가 최근 다시 재유행의 물살을 탔다. '슬램덩크'의 재유행은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개봉으로부터 시작했다. 일본에서 2022년 12월 3일에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일본에서 큰 흥행을 치르며 2023년 1월 4일 한국에서 재개봉했다. 개봉 2주차에만 해도 3040의 예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4-5주차부터는 1020 관람객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모 세대의 학창 시절 추억을 자녀 세대가 직접 관람한 뒤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MZ세대에게는 고전 만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슬램덩크'가 여저저 역주행의 전선에 올랐을까.

나이를 불문하고 슬램덩크를 즐긴 사람들은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슬램덩크를 보고 자란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 유행했던 추억의 작품이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며 향수를 느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농구라는 친숙한 소재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인 등장인물들의 상황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 즉 부모 세대가 경제력이 있는 어른으로 자라 그 시절을 재조각하기 시작한 타이밍과 자녀 세대가 '레트로'와 공감대에 이끌려 소비하기 시작한 타이밍이 겹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가족 단위로 관람을 오기도 하고, 한 번 영화를 관람했던 관람객이 반복해서 영화



를 관람하는 'n차' 관객역 또한 상당히 많다. 거기에 스포츠가 주는 특유의 웅장함, 성장 이야기에서 오는 위트가 세대 통합에 한몫을 더했다. '슬램덩크'의 재유행이 팝업 스토어 또한 열렸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티와 바지 등 각종 기획 상품과 만화책 등을 판매했다. 더불어 '슬램덩크'를 시작으로 생소한 일본의 학교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대거 증가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이에 자리 잡은 밈 '농놀(농구 놀이)'은 많은 사람이 '슬램덩크'를 통해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슬램덩크'의 재유행이 문화와 세대의 통합을 끌어낸 것이다.

이전에도 국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크게 유행했던 바 있지만,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영화관을 찾는 일은 실로 오랜만이지 않을까. 문화의 순기능을 엿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오랜만에 세대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훈훈한 상황이다.

[학우 인터뷰]
- 김민정(의명/광고홍보콘텐츠학과 22)

Q.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애니메이션 영화임에도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밀한 작화가 엄청났습니다. 음악도 분위기에 잘 어울리도록 적절하게 쓰여서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

습니다. 이런 요소들 덕분에 보는 데에 거부감이 적고 쉽게 몰입하게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Q.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 간략히 대사만 언급하자면,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저는 지금이라고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저 대사가 영화 내용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온 힘을 다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는 점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지예 기자
(jiyesunny@skuniv.ac.kr)

2023년도 입학식 신입생 환영사

자랑스러운 2023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높은 경쟁을 뚫고, 우리 대학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우리대학 전 구성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의 입학에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사 및 지자체 수반, 국회의 의원, 판검사 등, 입법, 사법, 행정부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을 뿐 만 아니라, 대기업 및 공기기업의 임직원과,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의 창업 대표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성 함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이수과 성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수주를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와 대학 재정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370 여개에 이르는 융합형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와 역량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대학은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학생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의 학습 정보관과 강의동, 대극장, 기숙사, 카페 및 식당, 골프 연습장과 풋살구장, 농구장, 스쿼시, 필라테스 및 요가, 각종 최신 헬스 기구와 사우나 시설을 갖춘 스포츠센터, 미용실, 은행 및 우체국 등을, 교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을 위해, 대학로에 대한 공연예술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학술 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대규모의 최신 수련원을, 구리시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쾌한 학생복지시설에서,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쌓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서간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이 곳, 西京의 殿堂에서, 여러분의 멋진 꿈과 밝은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 범 준 대독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올해로 개교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은, 1947년 개교한 이래, 4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중앙 정부의 경제 부흥리와 각료, 지방정부의 도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서경대학교는, '학생의 미래가 대학의 미래다', 라는 기치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첨단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

이와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대학의 부단한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년 신입생경쟁률과, 대학등록률, 졸업생취업률, 전국 대학 TOP 10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정학생회장 김희범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위로, 더 낮은 자세로 we low 서경대학교 제51대 위로총학생회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문화콘텐츠학과 17학번 김희범입니다. 신입생 학우분들께 글로써 저의 반가움을 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입시를 위해 고단했던 수험생활을 마치고 청춘의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신입생 학우분들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서경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많아, 학교생활에 대해 설렘보다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 주며, 제 대학생활의 시작을 빛내주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선배들의 도움을 이제는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어려운 점이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대학생활에 있어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보람찬 학교생활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로, 더 낮은 자세로 we low' 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지지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며, 저희 총학생회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하여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에 보람찬 날들이 가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학우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물류시스템공학과 18학번 박정현입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었을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대와 설렘, 행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과 걱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대학 생활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표현하신다면 두려움 따위는 금방 떨쳐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자유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고 새롭게 도전하여 뜻깊은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에서의 자기 주체적인 경험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더 큰 사회에서 자양분으로 작용하여 더욱 멋진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저는 학생회의 일원이자 대학 생활의 선배로서,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위로' 총학생회의 슬로건처럼 언제나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도울 것이며, 만일 어떤 일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두 팔 벌려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에서의 대학 생활이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찬란하고 아름다운 청춘과 보람찬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제33대 운유 인문대 정학생회장 서재완



23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서경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3대 운유 인문대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19학번 서재완입니다.

먼저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19라는 역병 속에서 입시 준비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힘든 입시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설레는 감정이 저에게도 전달되어 제가 신입생일 때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새로웠던 신입생 시절이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웹드라마를 보며 대학교에 대한 로망과 재미있는 일상을 생각하며 설레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은 저에게 억압으로 다가왔지만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억압은 재미있는 수업과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이는 저만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니었고 모두가 느끼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재미있는 수업이 저를 계속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교라는 시스템과 집단을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에게 대학교는 성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성장을 신입생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 눈밭에서 피어난 꽃이 아름다운 것과 같이 힘든 조건 속에서 발견과 성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진 결과입니다. 저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힘든 코로나19라는 역병 속에서 입시 준비라는 조건을 발판 삼아 이 서경대학교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25대 오늘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하는 우리! 제25대 오늘 사회과학대 정 학생회장, 군사학과 20학번 박정훈입니다. 서경대학교 신입생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학생회장으로서 축하를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험생활을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한 선배로서 서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입학 후 학교 캠퍼스에 오시면 스포스퀘어 운동장 바닥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947년 재단법인 한국학원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어 눈부신 발전을 거쳐 도약과 세계화를 이룬, 지금의 우리 학교가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의 근간에는 우리 학우분들의 꿈과 열정이 늘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경인의 힘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여 서경대학교의 한 동문이 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새롭게 펼쳐진 앞날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2대 바다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유봉환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고 작은 물결 되어, 함께 나아가는 이공. 제32대 바다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17학번 유봉환입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위해 길고 고된 수험생활을 견뎌 서경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만 마주했던 신입생 여러분들을 저희 32대 바다무적이공대가 대면으로 만나 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할 대학생활에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내음이 가득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처럼 버티기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마치고 결실을 맺은 학교에서 따사로운 가득할 새로운 환경에 마주하며 꿈꿔왔던 대학생활의 개강을 맞을 여러분들 또한 설렘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될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과 추억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추억들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설레고 즐거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험이 생기더라도 결코 미치지 않은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 겪을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 또한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다양하고 뜻깊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설레고 즐거운 추억들에 올해 저희 바다무적이공대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대 통합드림 예술대 정학생회장 두기상



2023학년도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제25대 통합드림예술대 정학생회장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18학번 두기상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고된 입시생활을 마무리하고 대학 생활을 앞둔 설렘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신입생분들의 대학 생활이 각자 꿈에 그리던 모습 그대로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4년이라는 대학 생활동안 새로운 경험들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경험들만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때 순간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가득한 지금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다양한 경험들과 순간들 속에서 때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었던 일상의 자유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 요즘, 입학을 준비하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볼 생각을 하니 기대만, 걱정 반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상황이 많이 나아져 신입생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만큼 2023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이전의 활기찬 대학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림예술대에서도 신입생분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1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이곳에서 그려왔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술을 꿈에 담아,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드림 예술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9대 든든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종휴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9대 든든 동아리 연합회 정 학생회장을 맡은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종휴입니다.

먼저 서경대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웅크려있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활짝 날아오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간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 본인의 최대를 끌어내셔서 수험생활을 끝까지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시고 신입생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설레는 지금, 어떻게 대학 생활을 그려나갈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스터디 활동 등등 많은 활동이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도전의 시작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대학생 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용기 내 도전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본인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대인관계, 학업, 진로 등등 때 순간이 본인의 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에서 후회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본인의 주관대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동아리연합회가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4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경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제34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20학번 김민경입니다. 우선 고된 수험 생활을 마치고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학번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한 게 잊게 벌써 벌써 4학년이 되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3학번 신입생 여러분께 축하를 쓰려고 하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이번 해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대학 생활이나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 대학에 입학하셨으니 지금까지 꿈꿔 왔던 대학의 로망을 모두 실현하시고 대학에 오셔서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회를 하며 다양한 활동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하며 인연이 되어 다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더욱더 재밌고 뜻깊은 대학 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경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들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대학 생활을 그 누구보다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시고 대학교에 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각자의 목표를 꼭 이루어나시길 바랍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해 저와 저희 학생복지위원회가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보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상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군사학과 20학번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학교 입학에 위해 지난 기간 동안 힘든 입시 준비 및 수험 생활을 하며 노력하셨던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진심으로 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입학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23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보니 과거 20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하던 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때는 코로나19가 심각하여 따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자치기구인 졸업준비위원회의 수습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최고 학년이 되어 위원장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입학식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현재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어 개강식과 동시에 많은 신입생과 재학생분들이 학교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제야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설렘니다. 현재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내외적인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입학하게 되면 자기 치기위 및 각 소속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졸업준비위원회는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는 즐겁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교 입학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경대학교는 '실용이 최고의 가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패러다임이 빠른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며 융복합 인재들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서경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새로운 도

전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단지 학습뿐만 아니라,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진로 모색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초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좋은 사례는 서경대신문사에 기고하여 학우들과 생각을 교류하여 지성의(知性)의 장을 확장하기 바랍니다. 마치

막으로, 늘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대학 생활을 즐기며,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방미영 (서경대신문사 주간)



편집장 이예은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7대 편집장 소프트웨어학과 19학년 이예은입니다. 서경대학교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험생활이란 긴 터널을 무사히 완주해낸 신입생 여러분께 힘찬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2월 말 진행됐던 신입생 환영회 운영위원으로써 여러분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간 무더졌던 풋풋함과, 설렘의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뚝뚝 뚝뚝 뚝뚝 신입생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지난 4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은 단순 학습의 장이 아닌 '작은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창구 같은 공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 동아리, 학회, 공모전 등 다양한 요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학우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장시킬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꿈과 열정 그리고 당당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현재 '신문사 편집장'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빛나는 청춘의 한 페이지로 마추려 합니다. 대학 신문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 사회 분위기 속 올바른 보도, 정직한 보도가 무엇인지 자문하며 늘 발전하는 편집장이 되겠습니다. 서경대 신문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송민경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 신문사 제67대 부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1학번 송민경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부편집장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서경대학교 입학에 축하드립니다. 지난했을 입시를 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라는 실감이 나시는지요? 저는 입학하고 처음 우리 학교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전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튜터링과 동아리를 하면서 차차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볼까 아직 혼란스러운 여러분들께 동아리 가입을 추천합니다. 꼭 동아리가 아니어도 일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은 신입생 때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렘에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들 시작하기에 앞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됩니까? 풀고 다시 꿰면 되는 것을... 그러나 실사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꾸준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생의 특권이니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신입생뿐만 아니라 진학하는 서경대 학우들께도 무사히 한 학년을 마치고 새 학년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이종은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 신문사 64기 정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학과 19학년 이종은입니다. 끝없는 터널 같았을 수험생활을 견뎌내고, 서경대학교라는 새로운 터전에 발을 내딛은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신입생 환영회를 전면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응어리가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질거리는 바람과 달달한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 새로운 추억을 써내려갈 신입생 여러분의 설렘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곧 사회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예정인 지라 마음이 상생생하고는 합니다. 새 출발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기에 설레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의 시작은 선배인 제가 먼저 앞장서 봤기에,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내기였을 때, 기본적인 감정 상태의 기반에는 항상 '불안'이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낯설음,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물음, 그 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얽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불안이 저의 온 신경을 뒤흔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짐에 따라 그 고난이 인생의 전부는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있듯,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엽게 꼬리를 흔들며 산책하는 강아지를 볼 때, 친구와 전화를 볼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야식을 먹으며 영화를 볼 때 등등. 당장은 힘들더라도 돌아보면 '나 열심히 살았네'라고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학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정기자 윤지예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 신문사 67기 정기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22학번 윤지예입니다. 이번 개강호에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그려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의 따스함이 여러분의 안온하고도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입학한 지 이제 겨우 1년을 채운, 막 '새내기' 타이틀을 벗은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심경을 상상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기억을 되짚어보면 마냥 신난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새내기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서경대학교가 첫 대학인 분들이라면 무척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몸으로 겪는 것은 천차만별이니까요. 두려움이 더 큰 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은 "한 발짝만 내딛어보지"라는 격려입니다. 꼭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 꼭 감고 내디딘 그 한 발이 인생에 큰 의미를 선사하고, 값진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실수했다면 다음에 제가 내디딜 발자취의 위치를 정해줄 것이고, 좋은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에는 두 발자국을 내딛어볼 용기가 생기기도 할 테니까요. 어느 쪽이든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보내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경대학교에서 후회 없는 생활을 풍요롭게, 즐겁게 채워봅시다. 마지막까지 빛나는 서경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수습기자 윤정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67기 정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자공학과 22학번 윤정현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짧고 길었던 여정을 끝내고 노력이라는 거름과 함께 합격이라는 꽃으로 개화하신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신입생이었던 제가 벌써 정기자가 되어 입학 축하를 쓰게 되었다니, 빠르게 흘러간 시간들을 점차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의 1학년은 코로나 규제와 대다수의 비대면 수업들로 인해 많은 경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여러 동아리도 해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치던 기타도 다시 시작해 보고,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시험기간에 학우들과 교내 도서관에서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새내기가 많은 학우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점차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저 때 저렇게도 해볼까?",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내향적인 제가 조금씩 벽을 두드려다 보니 어느새 동아리 임원부터 신문사 정기자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다양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어색하고 때론 많이 지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값진 경험들은 분명 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는 신입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까지의 여정에 잠시 쉬표를 달았다면, 우리 서경대학교에서 아름답고 멋진 서경인으로써 가득 만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습기자 금예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67기 정기자 금예진입니다. 23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시절 설레고 긴장되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을 읽고 계시는 신입생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실 텐데,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대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더 가치 있는 1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 2학기에 서경대학교 신문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학년 2학기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지원하여 서경대학교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좋은 기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입니다. 저처럼 망설이지 마시고 거침없이 도전하여 더욱 보람찬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대학교에서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기자 권경민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정기자 권경민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서경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20년도에 서경대학교에 합격하여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초·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서경대학교에 입학한 만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캠퍼스로 둔 서경대학교는 그에 걸맞게 대학 건물과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개강을 하는 3월부터 북한산과 함께 서경대학교는 봄의 향취로 가득해지고 들레길과 연결돼있는 산책로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여러분의 춘심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파스한 봄 날씨와 함께 신입생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되어 더 따뜻한 서경대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학문 연구에 정열을 불태우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인연을 원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대학 생활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에 입학하여 해보고 싶은 목표를 정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목표지점에 도착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여러분을 한층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대학 생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음껏 날개를 펼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학번으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전면 비대면을 실시하여 대학교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비대면 수업으로 마치고 2021년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듬해인 2023년도에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실속 있고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타오르는 만큼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서경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3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 알찬 새내기를 위한

서경대 길라잡이

새로운 학교에 처음 발을 디딜 때 막막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서경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 역시 막막함을 느꼈는가? 이번 기획은 그런 새내기를 위한 재학생들의 학교 소개와 대학 생활의 비법을 전하고자 한다.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바로 뛰

직접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처음 서경대 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이 학교 구조를 외우는 일이었다. 서로 연결되어있는 건물들과 지하 통로는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졸업할 때까지도 학교 구조를 다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서경대학교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직접 학교를 걸어 다니며 알아가는 보람도 있다. 그러나 새내기 여러분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도적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는 신입생의 학교 적응과 새내기 생활을 돕고자 필요할 정보들을 모아봤다. 학교생

활을 하며 유용하게 이용할 교내 시설과 원하는 대로 골라 먹는 서경대 학식 소개, 서경대 재학생의 새내기 생활 알차게 하는 방법, 신문사 기자들의 신학기 경험을 담으며 나눠 소개하겠다. 이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 새내기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 나가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서점, 인쇄실, 은행은 어디에... 서경대 유용한 시설, 한눈에 알아봅시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들르는 강의실 말고도 방문해야 할 곳이 생긴다. 우리 서경대학교 학내에는 학우들의 발길이 잦은 식당과 카페, 매점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학우들은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자리해 있는지 과연 모든 시설의 위치를 꿰차고 있을까? 새 학기, 학교에서 시설을 찾느라 헤매 여러분에게 유용한 시설 몇 곳을 알려준다.

등교하기 위해 1164번 혹은 2115번 버스를 타고 오자마자 눈에 띄는 유담관은 편의시설이 집약적으로 몰린 곳이다. 유담관에는 도서관인 학술정보관과 CLC Zone, 우체국, 신한은행, 서경스포츠렉스, 서경 더뷰티샵이 있다. 생활 전반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유용한 시설에서 유담관을 빠뜨릴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먼저 학술정보관은 유담관 1층부터 9층까지다. 정보자료실, 자유열람실, 학술세미나실이 있으며 스타디움과 전자사물함도 이용할 수 있다.

유담관 1층에 위치한 CLC Zone에서 'CLC'는 'Counseling · Learning · Career' 라는 뜻으로 상담, 학습, 진로 등 학우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곳이다.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와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집단 상담 말고도 1:1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편안한 카페 라운지에서는 담소를 나누거나 학습 모임, 취 · 창업 소모임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담관 3층에 위치한 서경스포츠렉스는 헬스, P.T, GX, 스쿼시, 스피닝, 필라테스, 골프 등 다양한 운동 종목과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다. 또한 유담관 3층에는 우체국과 신한은행이 있다. 유담관 9층에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을 할 수 있는 서경 더뷰티샵도 있다.

한편 청운관에는 서점과 문구점, 복사 · 제본을 담당하는 인쇄실, 보건진료소, 서경 더뷰티샵 블루, 에스테틱 앤 스파가 있다. 청운관 1층에 있는 서경 더뷰티샵 블루는 미용실, 서경 더뷰티샵 에스테틱 앤 스파는 피부관리실이다. 청운관 2층에는 서점과 인쇄실이 나란히 붙어 있다. 학기 초에는 사람이 몰리니 여유롭게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청운관 3층에는 응급처치 및 투약, 안정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다.

이외에도 청운관, 한림관, 북악관에 식당이 있으니 강의 전후로 학식 메뉴를 살펴보고 식당에 가기를 추천한다. 학식 대신 매점을 원한다면 청운관, 유담관, 북악관에 있으니 그리로 가보자. 매점 바로 앞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청운관에는 매점과 카페가 나란히 있으며 카페 SP는 대일관에 있다. 폭풍의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언덕 중턱 왼쪽에 북악이는 카페가 바로 그곳이다.

모든 학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보다 효율적인 서경대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위치 인지는 필수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치와 이동 시간을 미리 계산해보자. 사전에 준비한다면 한정된 시간과 체력을 심분 활용하여 알찬 새내기 생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서경대학교의 학식을 소개합니다



'대학 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학식' 이다.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 식당은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다. 우리 학교에는 총 3개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청운관이다. 청운관 학생 식당은 1층에 있으며 메뉴에는 한식, 덮밥, 양식 그리고 라면이 있다. 덮밥은 참치마요 덮밥, 새우튀김 덮밥, 제육 덮밥이, 양식으로는 돈가스 종류가 주로 나온다. 청운관 식당을 찾는 학생들은 주로 라면을 선택한다. 기본라면, 떡라면, 해장라면, 만두라면 등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준비되어 있다. 작년 기준 기본라면은 3,000원, 그 외라면은 3,5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됐다.

청운관은 일명 '폭풍의 언덕' 위에 있어 험한데서 수업을 듣는다면 언덕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 사진출처 : 서경대학식당 인스타그램(@skulunchboy)

는 장점이 있다. 메뉴도 빨리 준비되는 편이고 식당 바로 옆에 매점과 카페도 있으니 빠르게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면 청운관 학생 식당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한림관이다. 한림관 2층에 식당이 있다. 한식, 양식, 특식 세 종류의 메뉴가 준비되는데, 양식으로는 거의 돈가스가 나온다. 한식에는 제육볶음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외에는 간장 짬뽕이나 닭볶음탕과 같은 닭고기 요리가 주로 준비된다. 그리고 특식으로는 반계탕, 양곱창, 회덮밥 등이 나온다. 한림관 식당의 가장 큰 장점은 반찬을 직접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푸짐한 식사를 원한다면 한림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림관 식당의 식권 가격은 5,500원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북악관이다. 하루에 면 요리 1개, 밥 요리 1개 총 2개의 메인 메뉴와 김밥이 준비된다. 면 요리로는 우동과 라면이, 밥 요리로는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 덮밥, 찌개 등이 주로 나온다. 김밥은 삼겹살김밥, 목은지참치김밥 등 종류가 다양하다. 메인 메뉴와 김밥 모두 4,500원으로 기본 가격은 동일하다. 메인 메뉴에 500원을 추가하면 세트 메뉴를 먹을 수 있고, 김밥을 선택한다면 컵라면을 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북악관 음식은 저렴하고 맛있지만 가장 인기가 많아 봄비는 시간에 가변 메뉴가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의 학식에 대해 알아봤다. 동기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공강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된다. 한편 학식 메뉴는 매주 학생복지위원회 인스타그램(@sku_34th_hakbo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경대 재학생이 들려주는 알찬 새내기 생활

알찬 새내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개인의 목적과 성향에 따라서 대학 생활이 달라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업은 모두 성과를 얻고 싶어 한다. 대학교 수업은

고등학교와 다르다. 고등학교는 고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지만 대학은 사회와 국가에서 나아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고등 보통 지식을 기반으로 대학에서는 위 목표에 적합한 학업을 성취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를 위해 새내기일 때부터 학업에 열의를 다해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공부한다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내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대외 활동에는 봉사, 동아리, 공모전, 대회, 서포터즈 활동 등이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다. 공모전과 대회 경력은 나중에 화려한 자양분이 돼 대학 시절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한편 대학 생활을 하며 취미를 만 들어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미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 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사랑한

다는 것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준다. 대학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잦아서 인연을 만나 연애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연애한다면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이어 나가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다. 아르바이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졸업 후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여러분의 알찬 새내기 생활을 위해 서경대

재학생에게 조언을 구해봤다.

Q 박세현(가명 · 문과 20)

Q. 새내기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 재밌는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부원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서로 협동하고 의기투합하여 금방 친해졌습니다.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구가 생겼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동아리 활동을 찾아 사람들과 교류해보면 알찬 새내기 생활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Q. 새내기 생활 중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대학교 수업이 처음이라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수업에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며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기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복습했습니다. "할 때 하고 싶 때 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과 공부할 때는 그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쉬 때는 온전히 휴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덕분에 효율적으로 학점을 챙길 수 있었고, 장학금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집에서 영화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경대 신문사 기자들의 새내기, 어땠을까? 기자들의 신학기 경험을 파헤치다

권경빈 기자

새내기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됐고, 그렇게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들었다. 비대면 수업은 ZOOM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제로 대면하지 않다 보니 서로 소통할 때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그래서 녹화된 강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복습하면서 비대면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갈 기회가 없다 보니 학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처음 학교를 방문했을 때 예쁜 건물들을 보고 대면했을 때의 희망을 갖게 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번 2023년도에 2학년으로 복학한다. 대면 수업이 많아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 학교에 존재하는 헬스장, 도서관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해서 실용적인 대학교 생활을 해보길 기대한다.

금예진 기자

새내기 시절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입학 후 OT와 신입생 환영회 등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선배들로부터 직접적인 조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인지 수강 신청이 정말 어려웠다. 1학년 1학기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항상 집에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대학생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그러다 1학년 2학기 때 부분 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처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특별한 일 없이도 그냥 동기들을 만나고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만 해도 재밌었다. 돌아보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 올해는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입생 여러분에게 수업은 물론이고 교내 동아리, 프로그램과 연합 동아리, 대외활동, 학회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송민경 기자

새내기를 정말 알차게 보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다. 돌아보면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다. 매 수업 전후로 가볍게 예습, 복습을 했고 전공 튜터링과 학습동아리에 참여했다. 1학기에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에 들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2학기에 신문사에 들어가 기자가 됐다.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1년 동안 장학금도 받아보고 교내 공모전에 나가 수상도 해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취미도 많이 만들었다. 흘러보낸 시간과 경험의 결실을 채우고 싶어서 바쁘게 살았다. 자랑스러운 새내기의 내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결국 이래야 알차다는 의미가 아니거나 이리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니 여러분은 그저 새내기로서 새내기를 즐겼으면 한다.

윤지예 기자

필자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던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이외의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다. 신문사도 그렇게 시작했으며 지금은 기사를 심도 있게 찾아보며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한 의미 있는 활동이 됐다. 이처럼 학교에는 단과대나 과별로 진행되는 소모임, 동아리 활동과 함께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다. 이외에 심리 검사나 직업 검사 등 다양한 검사도 받아볼 수 있으니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폭넓게 참가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것보다 훨씬 질 좋고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에서의 알찬 새 학기를 맛보기로 소개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부분의 활동을 학생 스스로가 책임지고 해나가야 한다. 수강 신청부터 수많은 동아리와 학생 자치 기구 활동, 교내 이벤트와 대회, 모두가 기대하는 축제 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

는 것보다 발 벗고 나서서 행사를 꾸릴 때 만족감이 배가 될 것이다. 교내 소식은 학교 홈페이지 말고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지되니 관심을 가지고 자주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새내기 여러분과 똑같이 헛갈리고 어려운 새내기 시절을 보낸 선배들과 교류하며 새내기 생활의 해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직접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많은 대학 생활은 시작할 때 가장 막막하고 어려울 것이다. 대학 생활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이 기사를 새내기 여러분의 대학 생활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직접 학교를 누비며

길을 외우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수업은 어떻게 듣고 시험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교내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갔으면 한다. 그리하여 새내기 여러분이 서경대학교에서 저마다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기사에 담아 전한다.

색다름이 pop, 흥미가 up!

팝업 스토어 방문기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팝업 스토어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팝업 스토어란 '떴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의 '팝업(POP UP)'을 활용한 단어로, 2주 혹은 3개월 등 제한된 기간을 정해두고 운영하는 임시 상점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단순 제품의 '판매'가 아닌 '브랜드 간접 홍보'에 주력한다.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소비자들도 제품을 체험하고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기업들의

목표다. 한 데이터 연구 그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팝업 스토어에 대한 연령대별 검색량은 20~24세, 25~29세, 13~19세, 30~34세 순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출처 이노션 인사이트 그룹]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팝업 스토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재미'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브랜드만의 독창 요소와 포토

존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재미'와 '브랜드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팝업 스토어의 특징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팝업 스토어는 젊은 층들 사이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다. 바야흐로 '팝업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유통업계 또한 팝업 스토어 경쟁 열차에 올랐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농심 신라면 카페테리아 팝업 스토어'와 인기 농구 애니메이션 '슬램

덩크 팝업 스토어' 등이 그 예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서경대 신문사 또한 최근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팝업 스토어 3곳을 방문해봤다. 스페인 대표 럭셔리 브랜드 패션 하우스 로에베(LOEWE)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업한 로에베X하울의 움직이는 성 팝업 스토어부터 귀여운 캐릭터가 인상적인 와다다곰 언커먼스토어까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서경대 신문사와 함께 떠나보자.



마법에 걸린 의류 브랜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로에베'

스페인 명품 브랜드 로에베(Loewe)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와 「로에베 X 하울의 움직이는 성」 캡슐 컬렉션을 론칭했다. 이번 컬렉션을 기념하여 로에베는 더 현대 서울 1층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미 2차례 협업을 진행했던 두 기업은 지난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번 마지막 콜라보를 통해 하울, 소피와 같은 주요 캐릭터들을 소재로 한 여러 의류 제품들을 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로에베 시그니처 가방인 퍼즐백에서는 '켈시퍼'와 '힌'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자칫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성이 부각돼, 가방의 디테일들이 묻힐 수도 있었지만 프린트와 자수, 가죽 마케트리 기법(각기 다른 컬러 혹은 소재의 가죽을 수작업으로 잘라 퍼즐처럼 조립하는 공법)들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기하학적 라인을 더욱 부각시키도록 연출하였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더슨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야기로 로에베가 추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었다며 이번 컬렉션을 론칭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탈출구로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브리 스튜디오를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는 나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 그가 작품에 녹여낸 세계관은 순간에 대한 논평과 대안, 늘 진심 어린 태도, 충직함, 환상, 그리고 감성으로 가득하다. 스튜디오 지브리와 진행하는 세 번째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그와 로에베의 마지막 협업의 소감을 전했다.

「로에베 X 하울의 움직이는 성」 팝업스토어는 SNS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원활한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원 조정으로 현장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입구에 들어서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하울과 소피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동시에 잔잔히 들려오는 애니메이션 OST와 꽃밭 무늬의 바닥이 서로 잘 어울려 마치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게끔 한다. 매장은 전체적으로 구름 오브제를 사용하였으며 곳곳에 거울을 배치해 MZ 세대들을 겨냥한 포토 스팟을 만들었다. 매장 중간중간 전시되어 있는 의류들 사이에는 켈시퍼 모양의 큐알 코드가 배치되어 있다. 코드를 인식하면 간단한 참여형 스토리 게임이 나온다. 참여를 통해 나와 맞는 캐릭터를 직접 골라줘 관람의 지루함을 해소시켰다. 이는 로에베의 독특한 감성들이 잘 투영된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캡슐 컬렉션은 더 현대 서울 1층에서 2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로에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전유를 느끼게 해준 로에베와 다음 시리즈의 협업이 몹시 기대된다.

더 현대 와다다곰 팝업스토어, "앱 깔아야 돼?" 입장 쉽지 않은 '언커먼 스토어'...



여의도 더 현대 서울 6층에 위치한 언커먼스토어에 와다다곰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언커먼스토어는 현대백화점그룹 IT전문 기업 현대 IT&E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협업해서 만든 무인매장으로 캐릭터 굿즈, 음료, 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편집숍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운영되는 와다다곰 팝업스토어는 입장 제한 대상이 없으며 입장료도 무료다. 방문 당시 매장 입구에 놓여 있는 와다다곰 입간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발길을 멈춘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고 들어가 볼까 고민했지만 막상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무인매장으로 운영되는 언커먼스토어에는 입장하기 위해서 따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장 입구 원형 전광판 아래 '언커먼스토어 입장 안내'에 나와 있는 설명을 따라야 입장이 가능했다. 안내에 따르면 현대백화점푸샵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한 뒤 기본회원 우상단 영문 'UNCOMMON STORE'를 클릭하고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입장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커먼스토어 입장하기'를 클릭한 후 QR코드를 찍고 직원에게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야 드디어 와다다곰 팝업스토어에 입장할 수 있었다. 혼란만 앱과 씨름을 하고 나니 그제야 다소 작은 매장이 보였다. 입장하자마자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팝업 스토어는 와다다곰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와다다곰' 뿐만 아니라 '최고심', '팡그러진 곰', '곰달이'와 현대백화점 자체 캐릭터 '힌다' 등 귀여운 캐릭터 굿즈들이 자리했다. 또한 캐릭터 굿즈 사이 한편에는 '나이스웨터' 음료도 있었다. 매장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매장을 나오기 전 다시 매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벽에 걸려 있는 더 현대 종이 쇼퍼백이 눈에 띄었다. 무인매장이라 그런지 포장도 직접 해야 했다.

현대백화점푸샵 앱은 출입 관리 외에도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로 자동 결제다. 매장을 나가면서 따로 결제하지 않아도 앱에 등록했던 결제 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가 된다. 하지만 앱에 등록할 수 있는 카드가 단 8개 카드사뿐이라서 등록이 안 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입장하지 못했다. 다행히 앱을 설치하고 결제 카드를 등록한 일행과 함께 입장할 수 있었다. 주의할 점은 이 앱만이 아니다. 일행끼리 서로 상품을 주고받아서도 안 됐다. 또한 구매 의사가 없으면 상품을 잊지 말고 제자리에 두어야 했다. 직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모르는 새에 자동 결제되기 십상이었다. 결국 '무인매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인매장'이었다. 직원의 안내가 없으면 쉽사리 이용하지 못할 만큼 매장 이용이 어려웠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 동안만 특정 제품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이란 단기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언커먼 스토어'는 다른 팝업스토어와 달리 입장이 쉽지 않아 고객 접근성이 낮아 보인다.

지난 2월 9일,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에 '선데이플래닛47'과 '네이머클로딩'의 콜라보레이션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다. 2월 22일까지 약 2주간 열리는 이곳은 반려 식물 멀티 브랜드인 선데이플래닛47과 네이머클로딩, 커버넌, LEE 등 무신사 인기 브랜드가 속한 비케이브와의 팝업 스토어다. 팝업 스토어에 방문했을 때 한 칸에는 옷이 걸려 있고 다른 칸에는 식물이 전시돼 있어 마치 두 브랜드가 동행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선데이플래닛47의 화분은 네이머클로딩의 상징인 체커패턴과 인디고블루로 디자인 돼 있어 묘한 통일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선데이플래닛47은 도시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공원과 같이, 실내 공간 안에서 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브랜드다. 이들은 식물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자연과 실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지속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 한정된 자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매장 앞쪽에는 데이플래닛47의 플랜트바가 마련돼 있어 가드닝 존에서 원하는 화분과 식물을 고르고, 직접 식재해볼 수 있는 한정판 가드닝 키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는 좋아하는 식물을 직접 심어볼 수 있는 올인원 키트로, 물만 부으면 되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한 흙과 배수에 도움 되는 마사토와 멀칭(마감물), 간편하게 사용하는 종이삽까지 포함돼 있다. 식물은 총 3종이 마련돼 있었는데 바닷속 산호를 닮은 청산호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테이블야자, 생선 뼈 모양을 닮은 피쉬본이었다.

올인원 식재 키트를 담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식물과 화분 구성을 고르고 트레이에 압축배양토, 코코넛껍질, 종이 삽을 담는다. 두 번째로는 화분 위에 마감할 멀칭을 블루, 화이트 중 하나를 골라 직접 레버를 돌려 담는다. 마지막으로 다 담은 트레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예쁘게 포장해서 주는 방식이다. 키울 식물부터 화분의 디자인과 마감까지 직접 고르니 나만의 식물을 커스텀 한다는 느낌이 들어 더욱 애정을 가지기에 충분해 보였다.

뒤편에는 다이닝 키트 외에도 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 용품들을 판매했다. 잎의 청결 관리,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각종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식물잎 전용 관리제인 'Multi Plant Mist'와, 빛물과 같이 시원하고 달콤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고농축 식물 영양제인 'Rainy Shower'다. 해당 팝업 스토어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선데이플래닛47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식물과 관련 도구를 만나볼 수 있으니, 관심이 가는 학우들은 한번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선데이플래닛47, 식물과 공존 가능한 나만의 화분

소규모 임차인 웃고 울리는 팝업스토어, 팝업 스토어의 두 얼굴

최근 유통업계들이 앞다투어 팝업 스토어 유치 경쟁에 나섰다. 팝업 스토어를 이용한 마케팅이 브랜드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주류, 음료, 디지털, 가전제품, 캐릭터 등 팝업 스토어의 주제 또한 다양하다. 최근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주류 브랜드 '원소주'는 매일 1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줄을 서며 팝업 스토어 마케팅에 성공했다. 이처럼 팝업 스토어를 이용한 마케팅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팝업 스토어는 일반 시중 매장과 다른 다양한 차별점을 띤다.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일반 매장과 달리 팝업 스토어는 '기간 한정'으로 운영된다.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방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그러나 밝게 빛나는 팝업 스토어의 내운사인 뒤편에는 웃지 못할 인물이 있다. 바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소규모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장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다. 최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팝업 스토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 달에 몇백만원 수준이던 임대료가 억 단위로 뛰었다. 성수동이나 가로수길 등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의 경우 단기 임대 비용이 최근 들어 수천만 원에서 1억원대로 치솟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비단 임차인만이 아니다. 단기 임대자를 선호하는 건물주의 수 또한 늘

고 있다.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점포의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주에서 월 단위로 단기 임대를 놓아 장기 공실에 대한 손실을 메우려는 양상 또한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팝업 스토어는 과거 소위 '깁세' (비어있는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물건을 파는 상점) 매장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수반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현행법상에 따르면 점포의 일시 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

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점포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건물주가 퇴거 요청을 한다면 즉시 매장을 비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소규모 임차인을 웃고 울리는 팝업 스토어, 그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때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세 곳의 팝업 스토어들을 방문해 봤다. 첫 번째로 명품 브랜드 로에베(LOEWE)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업한 로에베X하울의 움직이는 성 팝업 스토어는 매장 곳곳에 마치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다. 두 번째로 와다다곰 팝업 스토어는

언커먼스토어로 입장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최근 인기 있는 캐릭터들의 굿즈로 구성된 곳이었다. 세 번째로 선데이플래닛47과 네이머클로딩이 협업한 팝업 스토어는 두 브랜드의 콜라보 화분을 판매하고,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 본인의 화분을 직접 커스텀 해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팝업 스토어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직

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어,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유리하다. 유통업계들은 MZ세대를 겨냥하기 위해 앞다투어 팝업 스토어를 유치하고 있지만 뒤따르는 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 임대 비용이 억 단위로 뛴 데다가, 현행법상 단기 임대

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의 브랜드 홍보 방식이 '팝업 스토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MZ세대가 이에 열광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한편 위에서 소개한 장소 외에도 두강상회, 별의 커피, 포켓몬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우들은 기간 확인 후 방문해보길 권한다.

주간칼럼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에서 만난 한민족 정신

주간 방미영 교수

필자가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를 따라 카자흐스탄 우수토베를 찾아 간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인 알마티에서 자동차로 약 4시간이 넘게 달려 도착한 우수토베는 낯설이 얼 정도의 강추위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우수토베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간 곳은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들이 타고 온 기차역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우수토베에 도착한 고려인들의 막막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강제 이주는 1930년대 일본의 침략적 정책으로 극동 사태가 악화하자 소련이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약 18만 명의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온 고려인들이 처음 도착한 우수토베가 고려인들에게 이주 역사의 성지가 된 것은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제 이주 채 100년이 채 못된 토굴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가능하게 한다. 땅굴을 파고 거죽으로 덮은 움막집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고단한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주해 온 고려인들은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농지를 개간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했다.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정착의 기반을 닦아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고려인들의 입지는 강건해져 갔다.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은 처음에는 농지 부족과 기후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꾸준한 노력과 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밀, 보리, 콩, 감자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지역의 농업 생산물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려인들은 농사지으며 고추장, 된장 등의 기초 음식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자체적인 농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중 부농을 이룬 사람으로는 유길준(俞吉俊)이 있다. 유길준은 당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여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중에서도 탁월한 부농인 유길준은 강제 이주해온 고려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로 인해 유길준은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역사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를 따라가면서 강인한 한민족 DNA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와 인종 차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려인 특유의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강제 이주 역사를 새롭게 쓴 고려인들의 문화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망을 형성했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정착의 역사를 다시 써나간 고려인의 공동체 문화적 코드에 대해서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학술회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강제 이주 된 고려인들이 다문화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을 아울러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기자의 눈 |

“상어가 눈앞에”… 자연을 탐한 ‘말라파스쿠아’ 바닷속 탐험기

지난 2월, 대학생이 되어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자 첫 해외 스쿠버 다이빙을 다녀왔다. 서경대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인 ‘SST’의 해외 동계 투어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에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말라파스쿠아 섬에 가기로 했다. 하루하루 낱짜를 셰어 보다가 체감하지 못하던 출국 날짜가 가까워지자 그제야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방에 있는 K-26 실전잠수복에서 체크 다이빙을 했다. 체크 다이빙 후 선배들의 해외 다이빙 경험담과 여행 계획에 대해 답소를 나눴다. 진짜 상어를 보러 간다고? 말라파스쿠아로 다이빙하러 가는 목적을 듣자마자 기겁했다. 예쁜 물고기 볼 거라고만 생각했지 상어를 볼 줄은.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 신나기보다는 걱정되기 때문이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SST에 가입했다. 수영 교 육 담당 이퀄라이징(압력 평형, 수압

과 귀의 압력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 이하 ‘이퀄’)이 안 돼 하강을 못하자 마스크를 중고로 팔고 동아리를 그만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입수와 출수를 반복하다가 이퀄이 됐다. 바다에서 조 잘 되기를 빌었다. 장비를 메고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온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야가 안 좋았던 첫 보트 다이빙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동떨어져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그만두지는 않았다. 그렇게 오픈워터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국내 다이빙만 해보다가 해외 다이빙이 라니, 당장 바다에 들어가보고 싶었다.

출국 당일, 복잡한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캄캄한 하늘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야경에 마음을 꼭 빼앗겼다. 별을 보느라 잠이 다 깼다. 밤 10시에 출발해 새벽 2시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피곤했다. 막탄 공항에서 차를 타고 3시간 가량 이동해 마야항구에 도착해서

선발대와 후발대가 만나 함께 보트를 타고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향했다. 눈이 감겼지만 일출과 바다, 그리고 말라파스쿠아 전경에 홀려 다시 눈을 떴다. 속소에 들러 짐을 놓고 바로 다이빙을 하러 나갔다.

말라파스쿠아(이하 ‘말파’) 말라파스쿠아 ‘Malapascua’는 스페인어로 ‘나쁜, 불행한’이라는 뜻을 가진 ‘mala(‘mal’)의 여성형)와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pasqua’가 합쳐져 ‘불행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지닌 섬이다. 말파는 거의 1년 내내 환도상어를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라고 한다. 이곳 말파의 다이빙 포인트 중 다킷-다킷, 노스 포인트, 이보 리프, 키나드슬, 가토 아일랜드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도 달려져 다이빙하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다.

일렁이는 에메랄드빛의 바다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넘실대며 파란

빛이 더해졌다. 잠수복에서 연습해도 실제 바다 너울은 감당하기 버거웠다. 영롱한 바다색은 바다에 입수하고 나서 봐도 여전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처음 마주하는 바다 색이었다. 하강하면 할수록 달리 보이는 바닷속 풍경이 매혹적이었다. 길고 검 같이 생긴 꼬리를 가진 환도상어를 눈앞에서 봤을 때는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했다. 설명대로 몸통만 한 꼬리는 다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어서 바다를 누비는 환도상어를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환도상어가 무서운 꼬리와 달리, 크고 동그랗고 까만 눈을 가졌으며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니 귀여웠다.

파란 불가사리와 색색의 산호 배경에 나타난 물고기들은 돌아보면 서 주인공이 됐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와 ‘도리를 찾아서’의 주인공 니모와 도리의 실제 물고기인 흰동가리와 블루랭을 발견했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 기자의 눈 |

상상하지 못한 ‘나를 표현하는 방법’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를 표현해 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력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차 자기표현의 방법이 변하고 있다. 미터 버스가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VR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나를 대변하는 온라인상의 나, 즉 ‘아바타’가 생기며 아바타 관습 기능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상용화가 된 직후에는 간단한 모양이나 색깔 관습 정도가 전부였지만, 어느 순간 미터 버스에서의 내 아바타는 머리카락 한 울, 의상 디자인 하나까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 심지어 VR 아바타는 얼굴의 작은 움직임도 따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커스텀 시스템은 있었지만 커스텀 한 아바타는 게임을 즐기기 위한 캐릭터에 가까웠다. 반면 메타버스의 아바타는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나 자신’을 표현한다고 인식돼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안겨주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시장이 될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해 보라’는 말의 답변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온라인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 내가 하는 것, 또 하나의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의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현세대는 이미 온라인에서의 자기표현에 익숙하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성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제약 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더해졌다.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뒤처지는 기분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도 SNS에서 자주 보이는 ‘제페토(ZEPETO)’와 ‘본디(Bondee)’를 직접 체험해보았다. 아바타를 만들다 보니 문득 ‘현실에서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아바타가 메타월드를 돌아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자 기분이 오묘했다. 이게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내 모습일까 싶기도 했다.

근래 들어 점차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노마스크’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10~20세대는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봤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게 되더라도 ‘화장을 조금만 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해져서’와 같은 이유로 마스크 벗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현상을 보고 필자는 어쩌면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나보다 온라인에서의 나를 더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어필보다 온라인의 아바타를 통해 내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교류하는 것이 훨씬 편

한 세상이 됐다. 자기표현의 방식은 얼마든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뀐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혁신적인 기술로 새롭게 변화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표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표현 방법을 찾아내고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막막해지기도 했지만 다양성을 가진 세대는 이점을 바라보기로 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겪을 수 있는 세대,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윤지예 기자

(jijesunny@skuniv.ac.kr)

| 수습의 눈 |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예능 “최강의 피지컬을 가린다”

최근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100’이 한국 오리지널 예능 최초로 비영어 TV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피지컬:100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최강의 신체 능력을 자부하는 100인이 출연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예능’이 아닌 한편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피지컬:100은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의 신체 능력을 자부하는 100인이 벌이는 대한민국 생존 경쟁 예능이다.

첫 번째 참가자로 한국계 일본인

유도 선수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등장했다. 추성훈은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종합격투기 메이저 단체 UFC 선수다. 그 뒤로 대한민국 스텔레톤 국가대표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성빈 선수가 등장했다. 윤성빈 선수는 스텔레톤에 입문한 지 3년 8개월 만에 월드컵 우승 차지하고 극한 선수다. 이 외에도 UDT 예비역, 크로스핏터, 체조 국가대표, 보디빌더 등 검증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다.

모든 미션은 비공개로 사전 공개 없이 진행됐기에 서로를 경계하며 탐색하는 장면이 대거 연출됐다. 외적으로 근육이 많아 보이고 선명하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강하단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한층 더 가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최종 우승 후보로 ‘윤성빈’ 참가자를 지목했다. 이는 가장 파하고 싶은 대상 1위를 의미했다. 그 이유는 윤성빈 선수가 총 6가지로 이뤄진 체력 평가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보였기 때

문이다. 실제로 우승 후보로 뽑힌 참가자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육각형 피지컬’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괴물 같은 피지컬을 보고 있으면 위압감이 들 정도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찾아보게 됐으나 지금은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애청자가 됐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뛰고, 온 근육 신경계가 자극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필자 또한 이들이 서로 최강의 ‘몸’을 찾기 위해 겨루는 모습

을 보며 매우 큰 영감을 받았다. 이

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한계가 어디인지 생각해봤고, 인간 피지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느꼈다. 피지컬:100은 나에게 그만큼 큰 영감을 주었고 덕분에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각성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피지컬 탐구 대전에서 우승을 거머쥘지는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100’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권경민 수습기자

(rud55qls@naver.com)

만/파/식/적

“엄마, 아빠 이젠 그만..” 세어런팅에 노출된 아이들

IT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의 모습을 공유하는 SNS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속, ‘세어런팅(sharenting)’이란 신조어 또한 탄생했다. 용어 자체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미 국내에서도 ‘맘카페’, ‘육아스타그램’, ‘육아예능 프로그램’ 등 서로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다수의 플랫폼이 자리 잡은 상태다.

세어런팅이란 ‘공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parenting’을 조합한 신조어다. 즉 보호자가 육아 생활 및 자식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남겨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 사진을 SNS에 올렸을 뿐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내 아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이의 정보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의 무분별한 업로드는 디지털 범죄 등 수많은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례로, 2011년 일본에서는 세어런팅으로 인한 유괴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세어런팅이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해시태그’와 ‘알고리즘’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퍼져나간 내 아이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세어런팅’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유명 여배우 이시영 또한 세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녀의 아이가 알뜰인 상태로 호텔 테라스에 서 있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질타가 쏟아지자, 그녀는 황급히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알뜰 업로드는 심하다”, “범죄에 악용될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SNS와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세어런팅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이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세어런팅’이 이제 우리나라 또한 그 이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업로드했던 수많은 자료들이 훗날 ‘부메랑’이 되어 내 아이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설

대학 등록금, 동결인가 인상인가

최근 14년 동안 동결 상태이던 전국 대학교 등록금이 인상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9.47%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1월 27일을 기점으로, 전국 사립대 중 첫 번째로 동아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시작했다. 동아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3.95%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계열마다 약 10~15만 원 정도 인상한 셈이다. 이를 시작으로 2월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191개 대학 중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4년간 동결되었던 대학교 등록금이 차츰 인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그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불가급상승으로 인해 몇몇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했을 거라 판단했다. 가장 먼저 등록금을 인상했던 동아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전년도 기준 약 24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인상한 등록금에 따른 수익이 약 56억 원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 교직원들은 이러한 등록금 인상을 환영하기도 한다. 15년째 이어지는 대학교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직원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직원 한 명당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직원들의 초봉도 불만에 한몫을 더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불만과 불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책조차 없다면 학생 개인이 떠나는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할 것이라 방침을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은 적어도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지출을 대학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특별 회계를 만들었다며 당장 등록금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대신 정부 재정지원 확대나 지원방식 변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완화된다면 대학이 재정 상황에 맞추어 등록금을 인상해 보다 나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 없이 무작정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생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커지므로, 둘 사이의 적절한 절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의 책

자기를 초월하는, 죽음을 마주할 용기는 무엇인가 - 야간비행 _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편지를 발표했다. 1931년, 그의 두 번째 작품인 '야간비행'이 출간되고 그해 페미니즘상을 수상한다. 그는 시험비행사와 공습 조종사로 남으며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비행과 글쓰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느 날 생텍쥐페리는 무장하지 않은 채로 여섯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싣고 단독비행에 나선다. 프로방스 상륙 작전에 쓰일 지역 상세 지도 제작을 위한 정찰비행이었다. 무선 신호를 보낸 후 사라진 그는 당시 전쟁 중이어서 실종자로 처리됐다고 한다. '디에 도라에게'로 시작하는 소설은 실제 인물의 이름이어서 그런지 언뜻 송고함이 느껴졌다. 인물에 대한 묘사와 비행기 조종을 직접 하는 듯한 묘사는 실로 구체적이어서 현장감이 또렷했다. 독자로서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폭 빠져들었다. 약천후 속에서도 야간비행을 포기하지 않은 조종사 파비앵은 "보석처럼 빼곡히 들어찬 별들 사이", "얼음처럼 차갑게 반짝이는 보석들 가운데서" 헤매면서 죽을 운명을 맞이한다.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죽음 앞에 마주한다. 결국 생텍쥐페리도 파비앵처럼 비행 중에 죽음을 맞았다. "일단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우연에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 조종과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생텍쥐페리의 용감

직접 그린 삽화를 담은, 어른을 위한 이야기 '어린 왕자'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매년 야간비행을 나가는 조종사의 마음가짐을 이토록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생텍쥐페리는 소설가이자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는 21세에 공군에 소집됐다가 개인 교육을 받은 후 조종사가 된다. 2년 후 그는 비행기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비행을 이어 나간다. 이후 라테코에르 항공사에 입사한 그는 이곳에서 리비에르의 모델인 디디에 도라를 알게 된다. 비행을 하면서도 글을 써 단편과 '남방우

한 태도가 엿보인다. 종종히 빛나는 별을 사랑한 생텍쥐페리에게 별은 말을 걸어오는 친구이자 길잡이였다. 전 항공 노선을 총괄하는 책임자 리비에르는 야간비행을 속으로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 리비에르는 규칙과 규율을 중시하며 그 예외는 없다. 그에게 사람이란 "빛기 전의 밀랍덩이"에 불과하기에 "이 재료에 영혼을 불어넣고 의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가 이리도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리비에르 자신에게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뛰어넘게 해 스스로 일을 사랑하고 강렬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그가 정비사에게 "하지만 인간의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인간의 목숨보다 더 값진 것처럼 행동하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한다. 우리에게 목숨보다 값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텍쥐페리는 리비에르를 통해 독자들에게 죽음에 맞설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물음을 던진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가치있는 것에 대해 결코 늦은 때는 없다 - 알렉스 카츠 : 반향



「알렉스 카츠 : 반향」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루이비통(Louis Vuitton) 재단 미술관을 통해 미공계 소장품 컬렉션들을 선보이는 전시다. 알렉스 카츠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장 예술가다. 9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 또한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표현 덕분에 예술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첫 작품은 '에이다 2'로 시작된다. '에이

다 2는' 이번 전시에서 '신드라 2'와 더불어 유일한 인물화다. 처음 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림'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서였을까? 전시 해설을 읽었음에도 큰 감흥을 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시가 끝날 무렵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당연히 이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캔버스에 피사체를 그리는 전형적인 방식을 넘어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컷아웃(cut out)'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했다. 알라미눔 틀의 일부에 초상화를 매달았기에, 시각적으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했던 카츠가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어진 '에이다 2'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다음은 이 전시의 대표 작품인 '반향'이다. 거대한 캔버스와 과감한 1:1 비율의 이 작품은 카츠의 후기 화풍을 대표하는 걸작이다. '반향'은 말 그대로 물에 비친 어느 그림자 형상이다. 생각보다 그림이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가까이 봤을 때와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색감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색에 집중돼있는 시선을 빛과 다른 요소들

· 전시기간 : 2022. 12. 09. ~ 2023. 03. 26.
· 관람시간 : 매주 12:00 ~ 19:00
· 관람장소 :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54)
· 가격 : 무료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이달의 드라마

'꿈'은 용기가 된다 - 스물다섯 스물하나 (2022)



하다. 순탄치 않은 태양고 펜싱부에서의 생활, 희도는 여러 고비를 이겨내고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펜싱 국가대표가 된다. 국가대표가 된 희도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온다. 희도는 아시아게임 결승전에서 유럽을 상대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얻는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자마자 유럽이 심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희도는 '금메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논란에 휩싸인다. 경기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희도에게 편파적인 질문이 쏟아지고, 희도는 결국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온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란은 희도와 가까운 스포츠부 기자였던 이진의 도움으로 종결되고, 희도는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다. 이후 희도는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가 되어 꿈을 이룬다. 여러 번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 앞으

펜싱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펜싱부에서 훈련받던 희도, 그러나 IMF로 인해 펜싱부를 없앤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펜싱을 포기할 수 없던 희도는 펜싱부로 유명한 태양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계획이었지만 희도는 태양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데 성공한다. 태양고 펜싱부에서 우상인 유럽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었지만 유럽은 그런 희도에게 쌀쌀맞지만

로 나아가는 희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저만큼 좌절당하면 다시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희도가 가진 용기는 '꿈'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청춘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무언가를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넘쳐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용기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 갈 원동력이 된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은 꿈을, 목표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반짝이는 꿈들로 가득 찬 저 세상이 날 부르고 있잖아 더 멀리 가보자" - 스물다섯 스물하나 OST '가보자-xydd시도' 中

김예진 수습기자 (keumij2726@naver.com)

이달의 음악

시작은 누구에게나 두렵기에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두 감정이 얽혀 다소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다. 신년과 새 학기를 맞이하여 무엇이든 해내 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을 학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만한 응원곡의 노래를 소개해 주고자 한다.



♪ 〈호랑이소굴〉 - 기리보이(Feat. Jvcki Wai)

"좋은 날은 오니까 오늘 하루 버티 나쁜 일이라도 / 나는 가볼래 내가 알던 곳부터 낯선 곳도 / 내가 바보래도 나는 가볼래 들어가 볼게 / 나는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

이 곡의 제목과 가사를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여기서 호랑이 굴은 위험을, 호랑이 새끼는 그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호랑이 굴'은 무엇인가? 눈 앞에 펼쳐진 고난이 당장은 괴롭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사처럼 하루를 버티면, 그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가면 언젠가는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려보자.

김예진 수습기자 (keumij2726@naver.com)



♪ 〈Defying Gravity〉 - 뮤직퀵 'Wicked' 테마곡

"Some things I cannot change / But till I try, I'll never know! / ... / I'd sooner buy defying gravity / Kiss me goodbye I'm defying gravity"

혹자는 '내가 그래봤자 변하는 건 없어'라고 말한다. 물론 혼자서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어렵다. 그러나 가사 말마따나, 해볼 때까지는 모르는 게 아닌가? '중력에 맞선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불가능을 뜻하지만, 그만큼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점이 느껴져 꽤나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다짐했던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 〈Dreams come true〉 - Nct 127

"예전 그날의 나를 보면 / '널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 늘 속상한 날들 불안한 네 하루 / 다 눈이 부시게 바뀔 거야"

우리는 힘이 들 때 타인에게 위로를 바라지만, 정작 스스로 토닥이는 법은 잘 모른다.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가끔 그 당시의 나를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다. 그럴 때는 위 가사를 곁집어 보는 건 어떨까. 내가 나에게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위기는 조금도 걱정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장소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 - 두물머리



원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두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섬 전체를 '두물머리'라고 한다. 여기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 한강으로 흐른다. 예전에는 이곳의 나무터가 남한강 최상류의 물결이 있는 강원도 정선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그리고 물결의 종착지인 서울 옥섬과 파파나루를 이어주던 마지막 정착지였기 때문에 매우 번성했다. 그러다가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육로가 신설되자 쇠퇴하기 시작했다.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고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어로 행위 및 선박 건조가 금지되면서 나무터 기능이 정지됐다. 현재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두물머리의 규모가 꽤 크기에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다면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곳곳에 포토존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념사진을 남겨도 좋을 것이다. 두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길었던 강추위도 한풀 꺾이는 듯하다. 3월은 봄, 새 학기의 이미지로 우리를 설레게 만든다. 아직 나들이를 나갈 만큼 따뜻한 날씨는 아니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분전환을 하러 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물머리를 추천한다. 흔히 양수리라고 불리는 두물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있다.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에서 발

무대에서 '독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기세에 힘입어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명예의 상인 발롱도르 11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 역시 10위권 내에 아시아 선수가 선정된 것은 손흥민이 유일하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던 손흥민은 올 시즌 아쉬운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그도 나이가 들었다.", "이적을 보내야 한다" 등 비판 섞인 아쉬움을 토로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진을 두고 크게 2가지 이유를 주장한다. 첫째로 열악한 스쿼드다. 토트넘은 에릭센(31)의 이적 이후 플레이메이커(중원에서 막힌 움직임)를 풀어주는 선수의 부재에 시달렸다.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는데 능한 선수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어느 선수보다 위협적이다. 하지만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니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불이 배급되지 못했다. 팀의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는 이를 해결하고자 최

이달의 스포츠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진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꿈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잉글랜드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셉티어의 명언이다. 주로 세월이 흘러 기량이 떨어질 선수들이 돌연 엄청난 플레이를 펼치다 시금 전성기를 일깨우는 경우 쓰이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선수의 재능과 신체적 능력의 강극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간혹 두 조건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곳에 더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에이징 커브(aging curve)'. 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에이징 커브는 모든 선수에게 찾아오며 그 시기와 시기에 따라 선수 생활의 길이도 정해진다. 선수들에게 있어 다소 치명적인 이 수식어가 최근 한 선수에게 화두 되고 있다. 바로 토트넘 홋스퍼(Tottenham Hotspur) 측면 공격수 손흥민(31)이다. 손흥민은 지난 2021-22시즌에서 커리어 하이로 찍으며 마침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 축구

전방 공격수 케인(30)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도 부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4위라는 쾌거를 남겼다. 하지만 올해 손흥민의 포지션은 작년과 비해 상대적으로 골문에서 멀어졌다. 케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고 남은 플레이메이커의 공석에 손흥민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골가득은 심해졌고 이는 부진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이유는 올 시즌 영입된 페리시치(34)와 손흥민의 겹치는 포지

션이다. 축구에서 '윙백(wing back)'이란 3-5-2, 3-4-3, 3-4-1-2와 같이 백3 포메이션의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를 일컫는 말이다. 수비보다 공격 능력에 더 집중된 윙백 페리시치는 여타 다른 윙백들보다 훨씬 전진성이 강하고 공격적이어서, 비어있는 후방 수비지역은 같은 라인인 손흥민이 커버해야 한다. 공격수가 수비수 역할을 한다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셈이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

고 팬과 구단에 사과했다. 부진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선수를 중심으로 응원하던 팬들 목적 없는 비난보다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